잘 가 르 치 는 대 학
ACE EWHA WOMANS UNIVERSITY

2016 동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Ewha Friends in Vietnam)
베트남 호치민
- 사랑의 교실

2016. 1

한*아 (경영)

사랑의 교실에서 가져온 소중한 경험

이번 겨울 이화봉사단에 선발되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랑의 교실'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베트남 사랑의 교실은 개개인의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2학기 종강을 한 직후부터 주말을 제외한 모든 날에 하루 약 6~8시간씩 프로그램 준비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봉사준비를 위해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아까웠다. 봉사활동이 이 정도의 시간투자를 할 정도로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의심하며 감히 봉사의 가치를 저울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끄러운 생각은 직접 현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에서 사랑의 교실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준비해간 프로그램 중 내가 진행한 것은 걱정인형, 일기장 만들기 프로그램이었다. 걱정인형과 일기장을 만들며 본인의 걱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서로의 걱정을 들어주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짤 때 어린 아이들이 걱정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고, 경제적인 면의 걱정을 제외하면 아이다운 걱정이 나오리라 지레짐작을 하였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조금 달랐던 아이가 있었다. 수업 중 발표를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찍어주는 스탬프를 받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발표를 자원했고 그 아이도 그 중 하나였다. 본인의 걱정을 생각해본 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에 그 아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외도가 걱정이라는 발표를 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의 걱정이 아니었다. 앞서 발표를 한 아이들과 다르게 박수를 쳐서 격려를 해 줄 수도 위로를 해 줄 수도 없었다. 당황한 나머지 어물쩡 발표를 중단시키고 아이를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 스탬프를 받기 위해 남들 앞에서 밝히고 싶지 않았을 상처를 많은 아이들 앞에서 발표한 것 같았다. 내 수업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그 아이에게 미안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고민과 걱정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닌데 그것을 간과했다. 분명 아이들 개개인마다 아프고 무거운 걱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후회스럽다. 이런 식의 후회와 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길고 힘든 준비기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기간 동안 한번 더 미리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베트남 봉사를 통해 만난 아이들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금방 생글생글 웃곤 했던 아이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기대이상으로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우리를 곧 잘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내가 이번 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간 만큼 아이들도 많은 것은 배우고 얻은 시간이었길 바란다. 이번 봉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던 기회였다. 모두에게 너무 감사 드리고 싶다.

최*정 (심리)

이화봉사단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

처음에는 교육봉사도, 베트남도 나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낯선 것들에 도전하고자 이화봉사단 베트남 교육봉사에 지원하였으나 수많은 시험과 과제를 넘기고 나서 종강 후에 맞닥뜨린 이화봉사단 준비는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낯선 일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이어진 준비에 멤버들도 나도 지치고 몸이 아파오던 때에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호치민 사랑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화봉사단 선생님들과 함께 12일의 여정을 마치고 난 지금, 나는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본다. 낯설게 느껴지던 것들이 그립고 아련한 기억으로 남고, 마음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화봉사단에서의 경험은 나를 한층 성장하게 만들어주었다.

열심히 수업을 시연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공연 안무를 연습하고, 각자의 짐을 챙겨 우리 이화봉사단 멤버들은 베트남으로 떠났다. 베트남에서의 일정도 만만치 않았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업, 저녁에는 매일같이 평가회의와 다음 일정들을 준비해야 했다. 한국에서부터 쉼 없이 달려왔으면 다들 지칠 법도 한데, 베트남에서 만난 멤버들의 얼굴은 한층 밝아져 있었다. 사랑의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들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정말 잘 따라와주었다.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손짓과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해 밝아지는 아이들, 새로운 것을 알고 관심을 가져가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은 커져만 갔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긴 수업에 참여했다. 아이들과도 더욱 가까워지고 선생님들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돈독해졌다. 열악한 환경일지 몰라도 호치민 사랑의 교실은 늘 활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수업 날, 힘든 일정이 끝나길 그렇게 바라던 선생님들도, 공부라는 것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도 서로가 이별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밝던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슬픈 이별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나도 눈물이 났다. 다같이 조금 더 성숙해지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마음으로 통하고, 인연을 쌓고, 그 이별을 견디는 이번 경험은 너무나도 낯설지만 소중하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여 어떤 어른이 될지, 미래모습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이야기하는 각자의 꿈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에,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돌아왔다. 언젠가 자신이 상상한 모습이 되어있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을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나도 더더 성장해나가길, 수업을 준비하며 내가 상상한 나의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아 (행정)

바라는 게 없어서 더 많이 주고 싶었던 아이들

해가 넘어간 지 한참 후 새벽이 시작될 만큼 늦은 밤, 발을 디딘 베트남 공항에서 우리를 처음 맞아준 건 습기였다. 한국을 떠날 당시 볼을 스쳐갔던 차가운 겨울바람은 생각도 안 날 만큼, 우중충한 습기로 가득 찬 공기는 베트남에 대한 첫 인상을 떨떠름하게 만들어주었다. 정신 없는 공항, 예상보다 더운 날씨, 연착된 비행기로 시작된 베트남에서의 봉사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 지 걱정부터 앞섰다.

정신 없이 첫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나를 보고 좋아해줄까 여러 생각을 하며 부푼 기대를 갖고 12군 '사랑의 교실'로 향했다. 거의 도착했다고 생각한 순간 버스 창문 밖을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잔뜩 들떠서 반짝거리는 눈빛을 빛내며 올망졸망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 그 순간이 그렇게 처음 아이들을 본 순간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환영과 처음 보는 나에게 먼저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의 친화력에 당황할 새도 없이 어느 새 나는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이란 역할에 대해 베트남에 도착해서야 생각났던 나와 달리 아이들은 내가 도착하기 전부터 '선생님'인 나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다. 보통 그 또래 아이들이 으레 가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도 없이, 아이들은 마치 오래 전부터 봐왔던 친구를 대하듯 내 소매를 잡아 눈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서 함께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보내주었다. 서로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때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서로 온 마음을 주고받으며 소통했다. 처음 볼 때부터 친구가 되어버린 아이들과 봉사기간 내내 손을 마주잡고, 눈을 마주치고 소리 내어 웃으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는 시간 속에서도 순간순간 마지막 헤어질 장면이 머릿속에 자꾸 그려져 마음 한 켠이 무거웠다. 오지 않을 것 같던, 늦게 오기를 바랐던 마지막 날 아침, 헤어짐을 예감한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모습에 그 동안 무거웠던 마음 한 켠이 아려오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어깨에 기대며 손을 잡거나, 허리를 안으며 안겨오지도 않고 정말 조용히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순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허탈한 슬픔이 몰려왔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당연한 수순을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너무 어린 나이부터 헤어짐에 익숙해지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순간, 내 단복의 어깨가 흠뻑 젖을 만큼 내게 안겨 눈물을 쏟아내던 아이의 울음이 오래도록 선명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환하게 웃어주고 맑은 눈빛을 보내주며 자신의 온 마음을 주었던 아이는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슬픔이 가득 담긴 마음을 주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실'의 온 아이들이, 봉사기간 내내 헤어

짐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듯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들의 온 마음을 우리에게 퍼다 주었다.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먼저 맑은 웃음을 건네준 아이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나눠주고 오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눔을 하러 갔다가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받고 와서, 오래도록 감사함으로 가득 찬 순간으로 남을 것 같다.

정*인 (교육학)

열정이 가득한 베트남 사랑의 교실

교육을 통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나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베트남 사랑의 교실 교육봉사.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종강을 하자 마자 약 3주간 베트남에 대해 배우고 수업 교안을 짜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 수업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줄 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러한 걱정이 무색하게도, 사랑의 교실 아이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첫 날부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랑의 교실 문 앞에서 반갑게 인사 해주었다. 나는 2주간의 수업 중 첫 수업인 명찰, 지갑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다. 첫 날이라 아이들도 많이 들 떠있고 선생님들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수선하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아이들은 수업 참여에 열성적이었다. 통역을 거쳐 수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아이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고 본인만의 지갑과 명찰도 잘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다. 그 이후의 수업에도 아이들은 피곤할 만도 한데 열심히 듣고 참여해주었다.

첫 주는 베트남 현지 적응과 수업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가서 아이들 이름도 잘 못 외우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색했다. 또한 덥고 열악한 교실환경, 체력적으로 힘들었기에 빨리 수업이 끝나기 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주교사,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하며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자연스레 정이 많이 들었고 더 이상 교실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랑의 교실 아이들과 헤어질 생각에 하루 하루가 너무나 아쉬웠다.

사랑의 교실 아이들은 평소에 복권을 팔거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위해 돈을 번다고 했다. 이화봉사단을 방문한 2주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학교라는 공간이 이 친구들에게는 간절한 곳이라는 것, 일년 중 이렇게 마음껏 관심받고 배울 수 있는 것이 2주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 마음이 아팠다. 호기심이 많고 착하고 열정적인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에게 현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2주간의 추억과 배움을 주는 것이지만 아이들 모두가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고, 배우는 것에 구애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야 겠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유 (식품영양)

가장 뜨거웠던 겨울

나는 처음이지만 이화봉사단은 매년 사랑의 교실에 가고 있다는 것, 봉사에 있어서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이화봉사단이 매년 사랑의 교실에 간다는 것이 좋았다. 아이들이 매년 기다리고 있는 '이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베트남 호치민 교육봉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화봉사단으로서 사랑의 교실 아이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준비 과정도 힘들었지만 현지에 가서 봉사를 하는 기간은 더 힘든 시간이었다. 매일 밤 회의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해서 늦게 잠들었지만 일찍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고,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우리를 반겨주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그 피로는 어느새 사라졌다. 매일매일의 피곤함의 씻겨주는 아이들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는 존재였다.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었다. 작은 것 하나도 선생님과 나누려 하고, 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 동안 감사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봉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감기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안 좋았다. 단체 생활에서 아프다고 쉬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았고 다음날 수업에서 보조교사 역할 대신에 못해 사진을 찍고 틈틈이 쉬어야만 했다. 내가 빠지면서 빈자리가 생겨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이렇게 계속 아프면 누군가 내 수업을 대신 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웠다. 그때의 미안한 마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히도 내 수업을 내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체조시간이 있어 걱정했지만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에 아픈 것도 잊고 내가 더 힘을 얻어 신나게 가르치고 있었다.

덕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도 아이들에게 체조를 가르쳐줄 때,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이다. 한번도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간단한 체조지만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이들의 그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열심히 하려고 앞에 있는 나를 보면서 동작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따라서 하는 아이들, 얼굴에 띤 함박웃음은 잊을 수 없다.

수업을 할수록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우리에게는 일상인 '교실'의 존재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이 속상했다. 이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가장 뜨겁고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임*진 (기독교학)

2주간의 뜨거운 선물, 베트남 호치민 사랑의 교실

'봉사'라는 말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쓴다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는 그저 주는 것 이라고만 생각한다. 베트남으로 다녀오기 전 나 또한 그랬다. 이전에도 봉사를 해왔었지만, 베트남을 다녀오기 전 나에게 '봉사'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남을 위하는 것만을 의미했다. 그 자체로도 귀중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단어 자체에 갇힌 말이었다. 이번 베트남 이화봉사단은 내게 '봉사'의 다른 측면들을 깨닫게 해주었다.

20명의 팀원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시작단계부터, 하나하나 학생들의 힘으로 해나가야 하는 일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일들부터, 욕심이 나 다른 사람들과 조정해야 하는 일들까지 어디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수업을 생각했다면 조금은 더 쉬웠을 일들에 어느새 나의 욕심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리가 띵해왔다.

사실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해내가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이화봉사단이었기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기회인 것이다.

베트남 현지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입학 후 여행이나 선교활동으로 해외에 다녀왔을때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끼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직접 눈 앞에 펼쳐진 한 나라의 다양한 모습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더욱 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다. 잠깐 왔다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이들의 사랑이, 사실 내가 준비해간 모든 것보다 더 컸다.

사랑하러 왔다가 더 큰 사랑을 받았다. 부족한 내 모습이 한 없이 부끄러워지는 시간들 속에서, 지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항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던 내가, 어느새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함께 했던 20명의 팀원들과 동행해주신 김석향 교수님, 사회봉사팀 진윤경 선생님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순수하게 아이들을 사랑하던 팀원들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고민했던 시간들, 언어의 장벽 앞에 함께 안타까워 하던 시간들..각자 다른 이유로 봉사를 시작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가진 마음은 모두 같았다. 매일 밤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을 나눌 때마다, 나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정말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신 교수님과 우리가 교육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관리해주신 진윤경 선생님까지 이 모든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도 큰 축복이었다.

가지 않을 것 같은 2주는 그렇게 가 버렸고, 다시 한국의 추위에 적응해버렸지만 주러 갔다가 더 많이 받고 와버린 선물 같은 베트남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화봉사단 20명과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너무도 큰 행복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졌던 열정과 사랑, 아이들에게 받은 순수한 에너지, 또한 그 시간이 남기고 간 것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

이*림 (지리교육)

모든 것이 좋았다.

이화봉사단은 언젠가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다. 이전의 이화봉사단 해외봉사 사진들을 보면서 또 그 경험담을 들으면서 해외봉사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는데, 이번 겨울방학에 이화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언어가 다른 베트남 아이들과는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지리교육 전공을 살려 세계지도를 활용한다면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베트남 해외봉사를 준비하였다. 20명의 이화봉사단 단원들, 모두가 진심을 담아 준비하는 만큼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다.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수업, 즐거운 수업을 해 주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늘 고민했고, 좋아할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준비물도 꼼꼼하게 챙겼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국하는 비행기에 오르니 비로소 베트남으로 해외봉사를 가는 것이 실감났다. 아이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친근하게 다가가야겠다는 다짐도 하고 준비해간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반갑게 손 흔들며 맞아주었고 또 안아주고 웃어주었다. '사랑의 교실'이란 이름처럼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아이들의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또 반겨주는 아이들이 고마워서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아이들의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물어보고 자주 불러주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은 웃음으로 답했고 또 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선생님이라 불러주었고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내 이름을 써주기도 하였다. 봉사를 오기 전부터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힘들 것을 걱정했는데, 아이들에게 말 보다는 동작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베트남어로 배워 쓰다 보니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다.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잘한다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웃으면서 반응도 크게 해주다 보니 아이들이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일기장을 쓰는 프로그램 중 한 아이가 '선생님들 와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한국으로 안 돌아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일기장에 쓴 것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와 닿아서 고마웠고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베트남 봉사는 나의 대학시절의 수 많은 날들 중에 며칠일 뿐이겠지만, 봉사 동안 아이들에게서 받은 진심 어린 사랑과 해외봉사라는 소중한 경험은 대학시절을 넘어 내 삶 전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수업을 하면서 스피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목소리로 말을 다 해야 할 때도 있었고, 수업시간이 줄어서 준비해 온 수업 내용을 변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2017년 1월, 2주 동안의 시간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으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길 바란다. 예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교실 아이들, 아이들이 꿈꾸는 일들이 미래

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화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우리 이화봉사단 단원들과 함께여서 모든 것이 좋았다.

이* (정치외교)

아이들과 내가 함께 꾼 한여름 밤의 꿈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의문이 드는 지금의 밤처럼 처음 베트남 해외봉사를 가겠다고 마음먹은 밤은 일상에 지쳐있었고 외로움은 극에 달했으며 지역센터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날이었다. 이렇게 나는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 도피성 해외봉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현실도피 계획은 실패했다. 2017 겨울 베트남 해외봉사는 무언가를 덜어내고 온 해외봉사가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양식을 싣고 온 해외봉사였기 때문이다.

해외로 떠나면 생각을 정리하고 올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 내가 좋아하는 봉사를 하면서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시작은 이화봉사단이 되었다. 하지만 출국당일까지 해외 교육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안을 짜서 시연하고, 물품을 준비했다. 서로의 도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양의 일이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일과 책임 때문에 초반에 많이 힘들었다. 단순히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또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 앞에 서서 수업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설레지만 순간순간 나를 긴장시켰다.

나는 1조로 배정되었고 드림캐쳐 수업 주교사를 맡게 되었다. 정서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어 그곳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기획한 수업이었다. 아이들의 어딘가 쓸쓸하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밝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고, 따뜻한 관심과 시선을 갈망하고 있었다. 의젓하지만 불안정해 보였고,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보였다.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하나하나 관찰하게 되었다. 매 시간마다 주어진 활동을 함께하면서 아이들을 살피는 일은 고되지 않았다. 전날 새벽까지 수업을 준비하면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행복했고 보람찼다.

사실 나는 주변의 시선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할 만큼 남들의 반응과 관심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오기 전에 불편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하는 순간들이 즐겁게 느껴졌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믿고 따라와주는 아이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한 시간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의 가슴 속에 깊게 자리잡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오는 것이 가능한 데에는 단연 우리 봉사 단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무척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서로의 수업을 알아가고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의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미소는 가슴에 담았지만 봉사단원들과는 미래가 있어

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해외봉사를 통해 여유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경험을 했다고 자부한다. 현재에 감사하게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향해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꾸준히 국내에서도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야겠다. 꿈속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겠지만 호치민에서의 겨울을 매 순간 되새기며 살고 싶다.

이*경 (스크랜튼학부)

베트남 사랑의 교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꿈을 피우는 곳”

펑펑 내리는 눈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돼서, 우리가 베트남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11시가 넘었었다. 그러나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한 우리를 반겨주는 건 온 몸을 감싸는 습기와 열기였고, 난 입고 갔었던 후드티와 겉옷을 모두 벗어야만 했다.

사랑의 교실은 우리 숙소로부터 버스로 20분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는 선생님들을 빨리 보고 싶어 9시 수업 시작 시간보다 일찍 교실에 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 이른 시간에 교실로 출발하곤 했었다. “작년에 왔었던 선생님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부터, 자신의 한글 이름을 쓰는 법을 기억하며 작은 손으로 우리에게 써 보여 “나를 기억해줘요” 라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아이도 있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낯을 가리지 않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애정을 표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딱 맞았다.

그러나 처음 목격한 교실은 감히 ‘사랑의’ 라는 형용사를 붙일 만큼 훌륭한 곳이 못됐다. 조그마한 마당조차 없었고, 그저 약 25개의 책걸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실 두 칸이 전부였다. 그 앞에 바로 마주해 있는 넓은 운동장과 커다란 건물 몇 채가 위풍당당하게 있는 공립 초등학교와 대조되는 풍경이었다. 우리는 각 잡힌 책가방을 메고, 통일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엉성한 철제망을 통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함께 노는 장소의 이름이 사랑의 교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실은 허름하고 남루할 지라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수줍게 보여준 장래희망으로부터 꿈을 향한 아이들의 사랑과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 환경이나 상황이 감히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아이들은 우리가 오기 전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었다.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꿈을 그저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었다. 현지 선생님이,이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그 지역에서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종업원이라고 했다. 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면, 사랑의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겐 이상과 꿈만이 있을 뿐이다.

사랑의 교실은 아이들이 목표를 상상하며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곳’이었다. 두 달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획했던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과 기억으로 남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은 (한국음악)

베트남 사랑의 교실에서의 2주

이화봉사단은 학교 생활을 하며 언제나 해보고 싶었던 교내활동 중 하나였다. 이화봉사단에서는 국내부터 국외까지, 또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봉사가 있었지만 그 중 국외교육봉사는 가장 하고 싶던 봉사이기도 하였는데 졸업을 앞둔 4학년, 우연히 베트남 해외교육봉사 모집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졸업을 앞둔 상황이라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대학시절 교내 봉사단으로써 한국과 '이화'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망설임 없이 신청하였고 결국 베트남으로 교육봉사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준비기간이 힘들기는 하였지만 지나고 보면 그 또한 추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준비과정 중 처음에는 사실 조금은 막연한 감도 있었지만, 점점 수업을 준비하면 할수록 곧 만나게 될 아이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준비한 활동 하나하나에 애정이 생겨났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받아 들일 지, 아이들에게 더 적절한 수업 교구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장 좋은 수업을 끌어내기 위해 조원 모두가 함께 모여 고민하였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준비로 인해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하루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2주는 꿈만 같던 시간이었다.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깊이 들어가, 또 그곳에서 2주 동안 교육봉사를 하는 일이 살면서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갚진 경험이었다. 아직도 아이들을 만나는 첫날, 교실 앞까지 나와 손 흔들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체력적으로는 매우 지쳐있던 상태였으나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피곤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힘이 났던 것 같다. 봉사기간 중 수업진행은 물론 아이들과의 교류에 있어 '언어의 장벽'은 가장 힘든 문제였다. 수업내용은 통역선생님들을 통해 어느 정도 전달되지만, 아이들과 대화는 하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속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말들이 언어가 아닌 눈빛으로 전해졌으며 아이들 역시 우리의 언어를 느낌으로 알아차렸다. 언어는 다르지만, 눈빛과 마음으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공연이었다.핸드벨 수업은 담당수업이었기에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무대에 서보는 경험 자체가 값진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

베트남에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난 지금도, 사랑의 교실 풍경과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이들에게도 2주간 함께했던 경험이 좋은 추억이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바르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화봉사단은 '이화'의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한국을 알리기에 매우 적합하였고 오히려 받고 느끼고 온 것이 훨씬 더 많은 고마운 경험이었다.

윤*솔 (사회복지학)

1월 9일부터20일까지 20명의 이화봉사단원과 베트남으로 교육봉사를 다녀왔다. 대학에 와서 노력봉사는 많이 해보았지만 교육봉사는 처음이었고, 처음 해보는 교육봉사를 심지어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베트남에서 할 생각을 하니 설레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출국하기 전 3주동안 수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수업을 해야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면서 즐거움도 함께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매일 학교에 나와서 회의하고 연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준비했던 것 같다.

우리 조가 첫 날 첫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첫 날은 아이들이 즐거워하긴 했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수업 분위기를 잡으면서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다들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익숙해지고 수업을 해나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지 않고 수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수업을 어떻게 할까 감이 안 왔었는데 손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해나가면서 신기하고 좋았다. 또한 수업을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고 주교사, 보조교사로 참여하니까 수업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다. 일주일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친해질까 싶었는데 마지막 날 아이들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울 때는 정든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같이 눈물이 났다. 또 내년에도 오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올 수 있다면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화봉사단은 예쁜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좋은 언니, 친구, 동생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베트남에서 봉사를 했던 약 한달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또 교육 봉사에 참여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을 느껴보고 싶다.

심*현 (식품영양)

꼬 이에우 깍엠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해외봉사라는 것은 나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화봉사단 국내교육 봉사를 다녀온 후로 더욱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화봉사단에 선발되고 나서는 해외봉사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뻤다. 하지만 준비를 하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팀원들과 직접 해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한다는 것이 생소하기도 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만들어나야 했기 때문이다.그렇게 한국에서 준비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출발할 때에는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좋아할지, 반응은 어떨지 걱정도 많았고 두근거림과 떨림이 컸다.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는 두근거림과 떨림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베트남에 다녀온 후에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교실에 도착해서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도 아이들에게 온전히 꾸밈없이 나를 보여주고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밝게 웃으며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고마웠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열심히 따라주었다. 보통 그 나이 때면 아이들이 때도 쓰고 싶고 억지도 부릴 텐데 서로 양보하고 우리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놀랐다. 떼를 쓰거나 억지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해외봉사를 통해 내가 한국에서만 봉사를 했다면 알지 못했을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내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고, 어려운 기회일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지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고 교육봉사를 하러 갔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돌아 오게 된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신카 (글로벌간호)**

호치민 사랑의 교실을 다녀와서

어느덧 대학교에 입학한지 2년이 지나고 3학년 2학기를 다니던 중, 사회봉사팀에서 문자 한통을 어느날 받았다. 2016년 겨울 '사랑의 교실'이라는 봉사활동 신청을 받는다는 문자를 받고 바로 친한 동기 친구에게 연락했다. 둘 다 봉사를 좋아해서 무작정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얼마 후, 서류 합격 공지를 보고 매우 기뻤지만 40명 중 20명만 면접을 통해 뽑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이 많았다. 면접 당일, 친구와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면접장에 들어갔고 무거운 마음으로 면접장을 나왔다. 감사하게도 몇주 후 합격 공지가 올라왔고 문자를 확인하고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었던 때가 기억난다.

이번 베트남 '사랑의 교실' 교육 봉사는 3학년 2학기 매우 지치고 힘든 시기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해준 고마운 시간들이었다. 베트남 교육 봉사는 결코 생각대로 쉽지도 편하지도 예상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생각과는 달리 베트남 교육 봉사는 사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20명이되는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했던 교육 내용은 프로그램 계획부터 기획, 시연 그리고 공연, 단체복, 벽화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를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해야 했다. 종강 후 매일 학교에 20명 다 함께 10시부터 5시까지 준비하는 과정은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봉사를 다녀와서야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다. 준비 기간은 길고 지치고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모든 팀원들 그리고 지도 선생님 덕분에 베트남에서 우리 모두 열심히 준비한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나누고 온것 같아서 정말로 기쁘다.

이번 베트남 봉사는 나에게 많은 도전과 비전 그리고 활기를 더해준것 같다. 베트남 '사랑의 교실' 천사같은 아이들과 함께 짧지만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말은 안통하지만 웃으며 보냈던 시간은 지쳐있던 나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심어줬다. 또한 너무 훌륭하고 즐겁고 한명도 빠짐없이 다 착한 19명의 단원들과 한명도 빠짐없다 다 얼굴도 마음도 다 예뻤다. 봉사를 가게되면 빼먹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 중 하나는 바로 팀원이다. 베트남 교육 봉사는 20명의 단원들이 4조로 5명씩 들어가 조가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각자 학교일로 너무 바쁘다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알아갈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나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중, 종강 후3주 내내 점심은 꼭 함께 먹는 사이가 되어, 빠르게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졌다. 봉사는 내가 한평생 모르고 지나갈뻔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항상 고맙다.

마지막으로, 봉사는 매번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소중한 인연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아무리 힘들어도 또 다시 지원하게 되는것 같다. 함께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아이들이 좋아한 교육 프로그램, 체육대회,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꾸민 작은 공연 또한 정말 의미있고 이 아이들에게는 한평생 한번 있을법한 추억을 만들어준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우리와는 달리 우리와는 다르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간 겨울 베트남 '사랑의 교실' 봉사는 정말 잊지 못할 뜨거운 겨울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송*진 (섬유예술)

베트남 사랑의 교실을 다녀와서

처음 내가 이화봉사단 해외 교육봉사에 지원할 때의 마음과 그 설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베트남으로 봉사를 간다는 것과, 이화봉사단 프로그램 특성상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평소에 혼자 해왔던 봉사와는 다르게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울림을 주는 것 같다. 함께해서 할 수 있었고, 함께라서 더 행복했었던 것 같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회의시간들과 수업시연도 재미있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현지 아이들의 성향도 잘 모르고 그곳의 상황도 감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계획하는 수업이 변수 없이 무사히 이행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서 수업시연과 피드백을 여러 번 반복하며 계획을 수정해 나갔다.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역시 현지 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였다.그러나 그 변수에 함께 대처해 나가면서 배우는 것이 많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업이 막상 아이들에게는 어려웠던 경우도 있고,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했던 활동이 예상외로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흥미로워 했던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과 보조팀원들이 더욱 서로 노력해가면서 수업을 함께 잘 이끌어주어서 무리 없이 진행 되었던 것 같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아이들과 팀원들과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하였던 봉사였다. 베트남 사랑의 교실의 아이들은 일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심지어 부모님들께서 교육받느라 일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수업을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였다. 그 나이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일지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이들은 대부분 복권을 팔거나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는 등 일찍부터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 있어서인지 내가 보고 느낀 그곳의 아이들은 또래의 여느 아이들보다 생각이 훨씬 성숙해져 있었다. 몸집은 나이에 비해 한참 모자를 정도로 작고 말랐지만 마음은 성장해 있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아이답게 클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 이라는 것을 느꼈고,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 자랄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업을 준비해서 가르쳐주러 간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운 것도 많았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1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언제 다시 보게 될까, 이 아이들은 크면 어떤 어른이 될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별이 너무 어려웠다. 아이들 역시 갑자기 와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눈을 마주 봐주고 지켜 봐주던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많이 슬퍼하였다.

그곳에서의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다. 지금의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

에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현재의 나로써는 해줄 수 있는 일이 몇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 언젠가는 이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줄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배*연 (붙어불문)

후유증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다. 언제 베트남에 다녀왔냐는 듯, 베트남의 무더위와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한겨울 속에서 어느새 나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겉보기에는.

실은 후유증이 꽤 크다.

'그리움'이라는 후유증이다. 특히, 사랑의 교실 아이들은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긴 듯 하다. 조금은 오글거릴 수도, 오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정말 많이 생각난다. 일상생활 속 갑자기, 문득 떠오른다. 설날에 집에 놀러 온 조카들을 만났을 때, 길을 걸어가다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봤을 때, 버스에서 음악을 들으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 G7커피를 마실 때,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꿈 속에서, 이봉 공지방톡에 공지가 올라올 때, 눈 내리는 것을 볼 때, 물건에서 made in Vietnam을 발견했을 때, 밀크티를 마실 때, 학교 앞 팟타이 노점을 지날 때, … 그리고 이렇게 소감문을 쓰고 있는 지금도. 수시로 사랑의 교실 아이들은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찾아와서 나를 잠깐 일시정지 시켜 놓고는 한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과 너무나도 해맑은 그 웃음이 참 그립다.보고싶다, 얘들아.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베트남 해외봉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당시에는 덥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 마저 그리울 뿐이다. 내 생각엔 모두 '함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화봉사단 벗들과 선생님들 참 그립다.

봉사 준비부터 실제 봉사를 하기까지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한국에 돌아와서 벗들에 대한 공허함이 컸다. 국교관에서 수업 시연을 하고 수업샘플을 만들고 점심을 시켜 먹고, 학문관 연습실에서 강남스타일을 연습하고, 밤 늦게까지 물품팀원들과 물품을 싸고, 매일 저녁 평가회의를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조원들과 맥주를 마시고 망고파티를 하고, 매번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관광을 하면서 연발 감탄사를 쏟아내고, 같은 색의 단복을 입고, … 이 모든 것이 벗들, 선생님들과 함께 였기 때문에 진정 가능했고 의미 있었으며 즐거웠다. 마치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참 착한데, 자기중심적이다.' 김석향 교수님께서 마지막 평가회의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주 많이 반성하고 공감하였다. 이제 와서 이렇게 글로 적는 것이 비겁할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이번 봉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다. 평가회의 때 통역 문제가 자주 거론되었는데 그때마다 조금 불편하였다. 솔직히 통역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수업을 거의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통역의존도가 높았다. 그리고 그 분들도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므로, 각 선생님의 실력과 스타일을 나누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베트남어를 조금 더 공부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돌이켜보면 무슨 일이든 아쉬웠던 점은 항상 남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웠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의 20대의 따뜻한 추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박*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짧지만 길었던 10일간의 해외봉사

다 끝나면 후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만 기억나고 더 아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채 2주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함께한 팀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준비과정은 누구나 그랬듯이 힘들고 지쳤었습니다.

매일매일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회의와 수업시연, 그리고 수많은 피드백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쯤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첫 수업날 아이들의 이름도 헷갈리고 수업도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 많이 힘들고 심적으로 지쳤지만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팀원들과 으쌰으쌰한 덕분에 마지막 수업까지 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엔 어떻게 외우지 했던 아이들의 이름도 조금씩 외워지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빛, 몸짓으로 통하는 저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많이 놀라게 되었고 느낀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현지의 상황과 눈으로 맞닥뜨린 현지의 상황이 달라 벌어졌던 많은 일들과 그를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3시간으로 기획했던 수업이 2시간으로 줄어들었던 일, 통역선생님들과의 갈등 등 2주간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졌고 눈앞이 막막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가고 스스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모두 잘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낯을 가리며 다가가면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아이들도 하나 둘 많아지고 자신의 물건에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적어 건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넘치는 사랑과 정을 준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인 제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10일은 아마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좋은 거름이 되어줄 것 입니다. 힘든일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였기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고 이봉단 덕분에 또다른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종강하자마자 자신들의 방학을 모두 반납하고 해외봉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준 봉사 단원들에게 정말 수고 했고 고마웠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스스로에게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이 (생물교육)

소중히 빛날 베트남에서의 기억을 회상하며

베트남 교육 봉사를 결심하게 된 것은 이화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조금 더 의미있게 마무리 해보자라는 의미였다. 큰 고민을 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다. 봉사를 통해 나에 대해 더 알아가고, 배우고 얻게 될 경험들을 생각했다. 어찌보면 봉사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채, 베트남에서 만나게 될 그들 보다는 나를 위주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종강을 하고,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조원들과 매일 만나며 수업들을 준비하고 고치고 뒤엎는 과정들이 반복됐다. 그 당시는 거대한 끝나지 않는 팀플을 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플과는 다르게 우리 조가 준비하는 수업은 내가 주교사로 참여하는 수업이 아닐지라도 무거운 책임감이 점점 생기는 것이 느껴졌다.

'함께' '같이' 의 의미가 매 순간 순간 다가왔다. '힘들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던 피로의 연속인 시간이었지만 끈끈해지는 팀워크와 점차 머릿속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수업들이 뿌듯했다. 그렇게 베트남에 도착해서 처음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오기 30분 전부터 이미 사랑의 교실에 도착해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소란스러운 환영의 분위기가 생생하다. 그렇게 약 한 주간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현지에서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수업을 하고, 호텔 방을 돌아다니며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수업이 있는 날이면 새벽 세네시까지 수업을 수정하고, 연습하고 잠이 들었다. 수업을 충분히 준비해갔다고 생각했는데 현지 상황과 통역에 따라 숙소에서 수업을 수정하게 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매일 밤 물품팀과 숙소에 모여 짐을 분할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반납을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매일 계속 된다는 것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부족한 수면 시간에도 아침에 아이들을 만날때면 조금이나마 피곤함을 떨쳐낼 수 있었다.

가장 보람찼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주 교사로서 내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나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다른 수업들에 비해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고, 새벽까지 수정과 보안을 거듭하고 첫 수업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의 눈과 표정과 태도가 나의 노력과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 너무나도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비슷해보이지만 매일 매일이 달랐던 하루들이 그렇게 흘러갔다. 어제보다 오늘 더 친해지고, 가까워졌다. 아이들마다의 개성이 눈에 보일 무렵, 우리는 헤어짐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선생님과 교수님이 식사 시간에, 버스 이동시 때때로 해 주시던 말씀은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보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면들을 깨닫게 해주었다. 두 분이 아이들에게 선물하신 마지막 날도 역시나 특별했다.축구선수와 의사를 꿈꾸고 변호사와 경찰이 되고싶다 말하는 아이들이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결국 꿈꾸게 되는 최대치의 목표는 우리가 매일 투덜대며 점심식사를 했던 레스토랑에서 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식사를 아이들과 함께 그 레스토랑에서 하게 되었다. 깨끗한 화장실을 신기해하고, 레스토랑의 놀이터에 신나던 아이들이 우리가 떠난 후, 먼 훗날 스스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할 때 꺼내보게될 수 많은 기억 중 가장 인상깊던 순간은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던 기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아이들의 순수함에 행복하기도 했던 복합적인 시간이었다. 베트남 교육 봉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계획하고, 구성하고, 실현해내던 시간이었다.그 모든 순간을, 그 모든 것들을 팀원들과, 선생님과, 교수님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베트남이란 나라를 생각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그 빛나던 시간들과 얼굴들에 감사하며 아이들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길 바래본다.

김린 (사회복지학)**

이화봉사단을 다녀와서

이번 겨울에 있었던 이화봉사단 베트남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국내에서 이화봉사단을 다녀왔던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이화의 친구들과 봉사를 가보고 싶었던 저는 베트남을 가는 이화봉사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트남의 문화도 경험해 보고 봉사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았던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걸렸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단원들과 함께 수업부터 마지막 일정까지 하나하나 조율해 나가며 수업이 완성되고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자 얼른 그곳의 아이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에 들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덥고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에는 오토바이와 경적소리가 만연했고 온도는 30도를 웃돌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적응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또한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나고 이에 대한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기뻐하는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없던 힘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준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온 수업을 맑은 눈동자로 집중해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나누어 주고 쉬는 시간에도 자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저희를 게임에 끼워주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벅차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사이가 한걸음 가까워 질 때마다 그곳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 경찰, 우주비행사 등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너무나 비슷한 꿈을 이야기 하는데 사랑의 교실 아이들은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교육 체계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현실이 슬프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단순한 글로만, 책으로만 읽고 보는 것 보다 직접 경험하였을 때의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차이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단기 봉사로 개인의 나눔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계속 마음속에 담아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 (간호학)

베트남에서의 2주간의 소중한 기억

처음에는 그저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해주는 정도로만 알고 가게 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수업을 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은 그저 동네에서 뛰어다니며 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로 대부분이었다. 복권을 팔기 위한 최소한의 베트남어와 산수를 배우며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준 수업들은 정말 소중하고 꿈 같은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교실에 가까워지면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에 귀엽기도 하면서 이렇게 좋아해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했다. 아침 일찍 수업을 하러 가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힘을 받아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는 수업들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이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받을 기회가 없는 경험들이어서 수업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것 같았다. 사랑의 교실의 맞은 편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베트남에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없는 아이들이 있다. 쉬는 시간인지 학교 아이들이 사랑의 교실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오기도 했다. 구경하던 아이들 중 "삼촌!"이라고 부르는 한 아이의 목소리에 반갑게 손을 흔들던 사랑의 교실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괜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러 오지 않았으면 했었다.

빨리 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동안 이 교실을 다니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아이들이 꼭 이 교실에서 이화가 주는 사랑을 받고 학교에 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업 중에 무엇을 만드는 시간도 자주 있었는데 만들고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을 선생님에게 선물해 준다며 주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큰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의 모습은 나를 많이 감동시켰던 순간 중 하나였다. 수업시간에 만들었던 것 말고도 자신의 팔찌 같은 것들을 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은 고맙게도 우리들이 준비해간 수업에 정말 잘 따라와주고 재미있어 해주었다. 한국에서 수업을 약 한 달간 열심히 준비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통역을 통해 수업하는 것으로 생기는 작은 문제들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어 수업이 지체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수업을 구상할 때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재미있는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번 수업보다 더 좋은 수업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아이들이 몸으로 하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적었고 교실이 좁아 공간이 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다음 베트남 봉사단은 이전 봉사단의 경험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전해주었던 수업들 보다 더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즐거운 수업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봉사 기간동안 단원들이 모두 다같이 열심히 봉사에 임했던 것 같아 모두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웠다.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봉사를 마친 후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소중한 봉사활동이었다.

김*영 (국제사무학)

이번 겨울 이화봉사단을 마무리하며

이 글을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감정이 교차한 시간들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대학교에 가면 꼭 해외봉사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학기 중에 틈틈이 조원들과 만나거나 종강 이후부터 출국 전까지 수업 준비 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했다. 준비 과정에서 "바쁘다, 힘들다" 라는 말로 투정을 부린 그때의 내 모습이 나는 베트남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스스로가 가장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때 왜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다.

늘 봉사 활동에 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부족한 내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봉사의 정의는 '남을 위하여 애씀' 이라는 의미로, 남을 위해 무언가를 베푼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 어느 봉사활동보다 이번 이화봉사단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우선, 이번 이화봉사단에서 나는 너무나도 멋있는 이화의 사람들을 만났다. 이번 겨울 방학 동안 동거동락하며 함께 보낸 진윤경 선생님과 김석향 교수님 그리고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는 말을 이 소감문에 꼭 남기고 싶다. 함께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그 기간 내내 내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런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차'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도 항상 변수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한 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들 도와주셨다. 분명 나는 그런 도움 없이 활동을 모두 마무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매일 밤 하는 평가회의에서도 모두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피곤했을 텐데 그 누구 하나 게을리 하지 않고 서로의 수업에 피드백을 하고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더 나은 모두의 생각이 되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의 생각에 감탄하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너무 행복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교실에서 만난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수업을 듣게 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무척이나 궁금했었다.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에, 행여 열심히 준비해간 수업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그런 우려가 무색할 만큼 첫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와있을 만큼 사랑의 교실 아이들은 우리를 좋아해주었다. 첫날 잔뜩 긴장한 상태로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우리의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먼저 손을 내밀어준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의 눈에 우리는 통역 없이는 알 수 없는 외국어를 하는 처음 보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데, 그런 우리를 아이들은 처음부터 너무 좋아해주었다. 조건 없이 나에게 선뜻 마음을 내어준 아이들의 순수한 그 마음이 고마웠다. 그런 순수한 아이들이 장난치고 뛰어 노는 모습을 볼 때면 마냥 예쁘고 귀엽기만 한데, 순간 순간 울컥할 때가 많았다. 평소 생계를 위해서 길거리를 복권을 판다는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있었다. 아이가 아이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었다. 아이들은 웃거나 장난은 치지만, 울거나 떼를 쓰지 않았다. 아직은 충분히 떼도 쓰고 울고 해도 되는 귀여운 나이인데, 벌써부터 참고 견디는 방법을 스스로 배운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 한 켠이 저려왔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헤어질 때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눈물도 났지만, 준비해온 수업이 모두 끝난 그 때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이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베트남으로 향했는데, 2주 남짓의 시간 너머로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에 서글펐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아직도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가 머리에 생생하다. 사랑의 교실에서의 나의 일은 모두 끝났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 사랑의 교실을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이화 봉사단을 마무리 짓는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